

# “禪은 소승 선바라밀은 대승”

## 대지도론 (상)

## 글쓴이



김성철 (중앙승가대 강사)

〈대지도론〉은 〈마하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웅수 보살의 해설서로 총 100권으로 이루어진 대지도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설명과 아울러 각 교리에 대한 반야 공관적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제17권에서 〈보살은〉이란 관념도 없고 애착할 것도 없기에 선바라밀을 갖는다. 〈마하반야바라밀경〉의 구절을 해설하면서 선(禪)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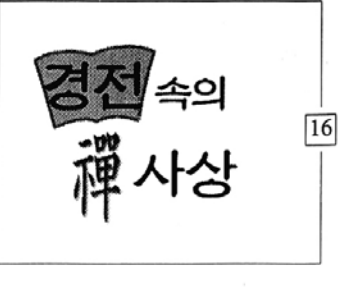
〈대지도론〉에서는 단순한 禪과 선바라밀을 구분한다. 단순한 선이란 아비달미불교, 즉 소승불교적인 선정(禪定) 수행으로, 감각적 욕구를 멀리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색계(色界) 4선과 무색계(無色界) 4정, 또는 무상정(無想定)이나 멸수정(滅受定) 등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선에 대한 〈대지도론〉의 설명은 소승 교학에서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선바라밀에 대한 설명에서 〈대지도론〉 특유의 시각이 발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발췌해 본다.

“아라한이나 복지불이 닦는 선수행의 경우 그 경지에 대해 애착을 내지는 않지만 대바라밀이 없기에 이를 선바라밀이라 할 수가 없다.” “선바라밀의 힘으로 무수한 모

## 공사상 체득 이타행 실천해야 禪수행 용수보살 해설한 백과사전적 교리서

이를 선바라밀이라고 부른다.” “소승의 선정 수행에서는 감각적 욕구를 멀리하고 갖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선정에 들지만 대승 보살은 그런 감각적 욕구와 갖가지 장애가 실체가 없음을 관할함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며 이를 선바라밀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선과 구별되는 선바라밀의 두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는 선수행이 단순히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제도



16

이러한 〈대지도론〉의 선관(禪觀)에 비추어 볼 때 달마와 혜능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는 선불교적인 선(禪)은 엄밀히 말해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결합된 개념인 선바라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도론적 시각에서 선불교를 조명한다면, 선어록은 반야어록이며, 선문답은 반야문답이라고 불러야 옳으며, 그런 선사들의 좌선을 통한 수행에 대해서만 선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신수와 혜능은 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관점을 피력한다. 신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明鏡臺)와 같으니, 부지런히 털어 내어, 때가 끼지 않게 하라.” 혜능: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며, 명경(明鏡) 역시 대(臺)가 아니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때가 끼겠는가?”

하택 신외 이후 남종선의 후계자들은 이 계승에 의해 혜능이 신수를 제압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신수의 계승은 선의 형식적 측면을 설명한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혜능의 계승은 그에 대한 반야바라밀적 조망을 노려한 것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볼으로써 양자의 갈등은 화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달마 이후 혜능은 물론 마조와 임제와 조주에 이르기까지 선사들의 언행은 어록으로 남아 화두로 이용되지만, 그들 자신의 수행법은 결과부좌를 통한 선, 즉 관심법(觀心法)이었다. 수행자들의 실질적인 수행과 그에 대한 반야 공관적 조망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교혼을 우리는 선바라밀에 대한 〈대지도론〉의 설명에서 얻는다.

##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5

## 반야 바라밀과 대지도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신조에 집착하는 열렬한 지지자는 반대되는 신조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싸우는 개와 마찬가지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교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이 브라만은 어떻게 진실을 식별하는가?” (수타니파타 중 예서)

지성의 그릇된 역할 가운데 ‘참다운’ 실재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대 선사와 현대 언어철학자는 그 한계가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란 그 활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또 실제로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받은 한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험사리 오도되고 마는 것이다.

조주(777-897)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줄기의 빛이 수십만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면, 이 한 줄기의 빛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은 가장 심오하고도 당혹스러운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승은 답변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으며, 장황하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스님은 다만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졌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할 수록 당혹스럽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운 반응과 마주치게 되는 것 같다. 도대체 그러한 반응이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심안

## 진리 바로보는 순간

## 그릇된 분별 소멸

(心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웅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당혹감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것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지성보다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 스스로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하나 있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개념을 부적당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조주스님의 웅수는 우리의 곤란한 자체를 가라앉히고 있다.

조주스님의 기도한 웅수 배후에는 답변이 아닌 질문 자체가 헛소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써 조주스님은 모든 진리를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 그 질문은 그릇된 개념으로 얽혀 있고, 잘못된 논리적 사고에 매여 있다. 개념과 논리의 양자는 모두 참다운 실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의 부조리한 행동은 실제 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심오한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세계는 직접적인 순간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스님의 웅수는 어떠한 형태의 개념화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전달될 수 없는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방법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닌, 직관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보거나’ 인식하는’ 기 능에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세계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습적인 사고에 내태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파악하는 순간이란 그릇된 분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소멸되는 순간이며, 세계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세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과학산책

## 항생제와 세균 ③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을 보존하려 한다.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소위 서양 과학에서도 이 점은 인정한다. 즉, 살아있다는 말 자체에는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여 환경을 자기 생존에 유리하도록 개척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병원균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저항성을 개발한다. 일단 저항성이 만들어지면 그 병원균의 모든 자식들도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일단 저항성 특성이 만들어지고 나면 감염되는 모든 사람들은 약을 저항성 문제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들 생물들은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사태는 더욱 나빠진다.

일본에서도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DT104도 항생제에 저항력을 보이는 살모넬라균의 변종이다. 1984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유럽 및 미국으로 퍼진 이 균은 집단식중독을 일으킨다. 이 병원균은 대부분의 항생물질로 치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미국에서는 발생 한 살모넬라 식중독 가운데 30% 이상이 DT104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항생제 저항성 병원균의 출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연구에 의하면 연쇄상구균 폐렴에 의한 감염 환자 431명 중 25%는 페니실린 저항성의 병원균에, 그리고 전체의 25%는 여러 가지 항생제에 저항 반응을 보였다. 비행기 덕택에 이 저항성 폐렴균은 뉴욕에서 덴버, 플로리다, 네바다 그리고 파리로 빠른 시간에 번져갔다. 비행기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공헌을 했지만 또한 전염병을 옮기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병원 감염 전문가인 위스콘신대학의 데니스 마키에 따르면 약 200만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병원에서 감염되고 이들 감염자들의 반 이상이 적어도 한가지 항생제에 저항성을 보인다. 1992년 미국에서는 13,300명의 병원 환자들 이 약품 저항성 박테리아에 의해 죽었다. 저항성은 특히 에이즈,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와 같은 면역시스템이 손상된 사람들에게는 특히 심각하다.

뉴욕시의 공중위생 연구소의 배리 크레이스윌스(Barry Kreiswirth)에 의하면 지금 뉴욕시와 다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결핵은 9가지 약품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폐렴 핵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항생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 항생제 면역 날로 커져 치료안되는 병균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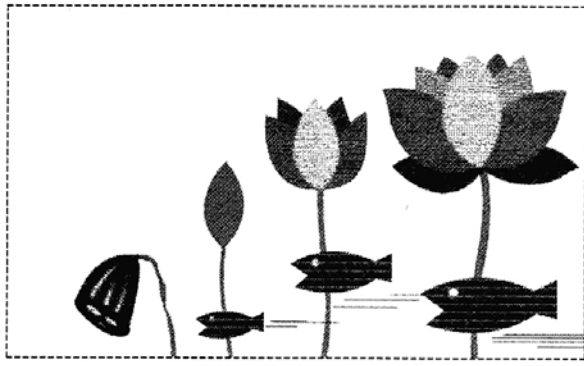
.....

## 의약품 의존하기 보다 질병 사전예방 더 중요

.....

있는 것인가? 감염성 질병에 대한 만능 해결책으로 여겨지던 항생제도 일정기간 지나면 더이상 약효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98년 5월 과학자들이 해가 없는 박테리아가 저항 유전자를 날려 이를 병원균에게 전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왜 해가 없는 박테리아도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항생제에 노출된 모든 생명체는 병원균이 직면하게된 것과 똑같은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해가 없는 박테리아도 병원균을 죽이려는 항생제에 저항하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성은 해가 없는 유기체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를 감시해야할 지경이다.

항생제 저항 문제에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대비스 박사는 말한다. 병원균들은 항상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약품에 대해 저항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삶의 냉정한 진실이다.

그러나 지성적인 우리는 그것을 느리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감염성 질병들은 의학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즉, 공중위생, 환자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 인터뷰

## 건강식품 ‘블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블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블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블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탄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블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영 합장

## 블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서(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룡 합장

##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이시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실험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膠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